



‘사랑의 불시착’ 따라가는 ‘사랑의 순례길’.
윤세리와 이정혁의 발길이 닿았던 곳 따라가는 여행
 삶의 희망과 용기, 사랑까지 실어다 주었던 숨겨진 명소들
 기차와 버스로 쉽게 찾아가는 방법
 스위스에서 마주할지도 모르는 사랑의 순간

지난 2월 16일 종영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현지 촬영지가 스위스로 알려지면서 드라마 초반부터 증명하는 날까지 현지 촬영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각 장소에 대한 여행 정보가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세 남녀의 엇갈린 운명의 복선을 담은 지그리스빌(Sigriswil) 다리부터 드라마 시작 소개 영상 중 보이는 스위스의 도심 풍광, 행복한 재회가 아름다웠던 에펠로그 등 윤세리와 이정혁(현빈)이 함께 바라보고 경험한 스위스의 촬영지를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까지 실어다 주었던 사랑의 불시착 로케이션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자.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상 가장 편리한 동선을 따라 촬영지를 소개한다.

1. 바덴(Baden)

윤세리가 삶을 마감하기 위해 찾아간 스위스의 안락사 관련 기관에서의 상담 장면이 나온다. 안락사 대신, 스위스 여행을 추천받았던 그곳. 그곳은 취리히 근교의 작은 도시, 바덴에서 촬영되었다. 바덴은 온천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 도시로서의 위용도 함께 지니고 있다. 현대미와 온천 리조트, 문화적 중심지로서 다채로운 매력이 섞여 있는 곳이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구시가지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방어 구조물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건물 및 극장,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가 볼만한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1) 윤세리에게 스위스 여행의 영감을 준, 랑마트 재단(The Langmatt Foundation)

윤세리가 상담을 받던 곳은 바덴의 랑마트 재단에서 촬영되었는데, 랑마트 재단은 스위스에서 가장 최상의 수집품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 브라운과 보베리 등의 기업 가문이 인상파 시절에 수집한 진귀한 회화 작품과 가구를 기증하여 설립하게 되었다.

르누아르, 모네, 세잔, 고갱과 반 고흐 등 위대한 화가의 회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1990년 이래, 셀 수 없이 많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회화작품들을 시드니 브라운(Sidney Brown)과 그의 부인인 제니 네 술처(Jenny, née Sulzer)의 거주지로 이용되었던 빌라에서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브라운 부부는 스위스에서 현대 프랑스 회화를 선호한 사람 중 최초의 수집가에 속한다. 브라운 집안의 가구들, 장식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랑마트 미술관은 20세기 초 문화적인 기업가 가문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부의 마지막 상속자인, 존 A. 브라운(John A. Brown)의 기부 덕으로, 바덴의 웅장한 기업가의 빌라, 빌라 랑마트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우아한 박물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빌라 랑마트에서 뛰어난 예술 작품들을 관람한 후, 방문객들은 꾸러진 소품 바구니를 들고 낭만적인 피크닉을 뛰어넘어 정원에서 수준 높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찾아가기



바덴은 취리히 중앙역에서 기차로 15 분 거리에 있다. 취리히 공항에서도 직행 열차 편이 운행되는데, 공항에서 바덴까지는 34 분이 소요된다.

랑마트 재단은 바덴 기차역에서 반호프슈트라세(Bahnhofstrasse)를 따라 걸다가, 교차로를 건너 파르크슈트라세(Parkstrasse)로 이어서 직진하다 뢰머슈트라세(Römerstrasse)에서 좌측으로 걸다 보면 오른쪽에 건물이 나온다. 총 10 분 정도 소요된다.

2) 바덴에 간다면 이 맛은 꼭, 슈파니쉬 브뢰틀리(Spanisch Brötli)

사실, 바덴은 이곳의 전통 별미 페이스트리인 슈파니쉬 브뢰틀리(Spanisch Brötli)로 유명하다. 이 디저트는 취리히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인기였다. 걸어서 25km 나 되는 길을 새벽부터 하인들을 시켜 아침 식사용 브뢰틀리를 사 오게 했다고 전해진다. 1847 년 스위스 북부 철도가 처음 개통했는데, 취리히와 바덴을 잇는 구간이었다. 이 덕분에 바덴에서 취리히까지 이 페이스트리를 가져오는데 단 45 분이면 되다니.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래서 이 철도 구간은 슈파니쉬 브뢰틀리 반(Spanisch-Brötli-Bahn)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유명했던 페이스트리가 20 세기 들어 시들해졌고, 거의 잊혔다가 최근 로컬 베이커리에 의해 새롭게 등장했다. 모저스(Moser's) 베이커리 카페에 가면 “슈파니쉬브뢰틀리(Spanischbrödli)”라는 이름의 전통 페이스트리를 맛볼 수 있다.

찾아가기

바덴 기차역 바로 앞에 자리해 있다. 기차역 외에도 세 곳의 매장이 바덴 곳곳에 있다.

www.backparadies.ch

2. 룽게른 호수(Lungernsee)

에펠로그에서 두 사람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품을 내어준 풍경이 바로 룽게른(Lungern)이다. 룽게른 마을에 있는 호수로, 마셔도 되는 수질에 23 도까지 수온이 올라가서, 여름에는 수영하기에 최고의 스포트이다. 고운 모래가 있는 자그마한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고, 워터 슬라이드도 설치되어 있어 로컬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1) 룽게른 호수 즐기기

이 산정 호수는 댐으로 형성되었는데, 페달 보트, 낚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바람 덕분에 요트와 윈드서핑으로도 인기다. 실제로 여기에 세일링 스쿨도 있다. 호수 주변으로 완만한 순환 루트가 있어, 산책, 하이킹, 사이클링을 즐기기에도 좋다. 룽게른 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룽게른 기차역에서 15 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호숫가 전망대가 있는데, 호수와 브뤼니크 고개 전망대(Point de vue sur le lac et le Brünig)라는 이름으로, 이름 그대로의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2) 룽게른 호수길 걷기, 16km 에 달하는 나비 트레일과 30 분의 산책 코스

쉬메터링슈파드(Schmetterlingspfad)를 따라가며 들꽃과 100 종류 이상의 나비(6 월-9 월)를 만나볼 수 있다. 좀 더 짧은 구간을 원한다면 2.5km 의 숲길을 따라가며 100 개의 정보 패널에서 동식물과 빙하 시대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여정은 30 분짜리 산책 코스로, 마을에서 셉펠리(Chäppeli) 산장까지의 구간으로, 산장에는 놀이터와 어린이 동물원이 있다.

3)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

룽게른에서 투렌(Turren)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도 타볼 만 하다. 투렌에서는 체어리프트를 타고 해발고도 2002m 위, 쉐뉘엘(Schönbüel)까지 이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하이킹 및 자전거



루트가 이어진다. 가장 유명한 하이킹 트레일은 브리엔처 로트호른(Brienzer Rothorn) 봉우리까지의 트레일이다. 케이블카를 타려면 룽게른 기차역에서 도보로 20 분 정도 걸으면 된다.

4)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Luzern-Interlaken Express)

이 룽게른 호수의 풍경을 기차로 즐길 방법이 있다. 바로,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에 오르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 높은 두 목적지, 루체른과 인터라켄을 잇는 파노라마 기차로, 낭만이 내려앉은 호수와 초원, 호반 마을들의 정겨운 풍경을 보여준다. 단 두 시간 만에 두 목적지를 편리하게 이어주는데, 여정 중에는 수많은 강과 폭포에서 흘러내려 형성된 다섯 개의 산상 호수를 지난다. 호반을 따라가며 병풍처럼 둘러싼 산 절벽들에는 새하얀 눈꽃이 내려앉아 그림 같은 사진을 만들어 낸다. 기차 내에는 식당칸이 마련되어 있어 맛깔난 치즈에 와인을 곁들여 여정을 즐길 수 있다.

-소요 시간: 1 시간 50 분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무료, 개별 여행자의 경우 예약 불필요. 9 명 이상 단체의 경우, 그룹 예약 필수.

3. 브리엔츠(Brienzi) 호수

윤세리에게 살아 보라고, 살아 내라고 위로를 주었던 그 마법 같은 호숫가의 피아노 선율. 이 명 장면이 촬영된 곳이 바로, 브리엔츠 호숫가에 있는 작은 마을, 이젤트발트(Iseltwald)다.

에메랄드빛 브리엔츠(Brienzi) 호숫가에 자리 잡은 동화 속 마을다운 이젤트발트에서 호수를 바라다보면 호수 위로 팔레트 한가득한 계절의 색채가 반사된다. 특히 이젤트발트 호숫가를 따라 걷다가 허기가 몰려오면 마을 레스토랑에 들러 브리엔츠 호수의 맑은 물에서 싱싱하게 잡혀 식탁에 오른 생선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배가 부르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한 면으로는 비취색 물빛이, 다른 면으로는 계절의 색채가 짙게 물든 나무들이 즐비한 길을 따라 아름다운 기스바흐(Giessbach) 폭포와 호수 위로 웅장하게 자리해 있는 같은 이름의 호텔까지 이어갈 수 있다.

찾아가기

윤세리처럼 유람선을 타고 이젤트발트에 다가갈 수 있다. 인터라켄 오스트에 있는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면 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인터라켄 오스트에서 버스를 타면 30 분 정도 소요된다.

4. 툰(Thun) 호수

윤세리가 삶을 마감하기 전, 출렁다리 위에서 녹음을 하던 장면. 그곳이 바로 툰 호수 쪽에 있는 지그리스빌(Sigriswil) 다리다. 지그리스빌은 툰(Thun) 호숫가에 자리해 있다. 지그리스빌에 속한 11 개의 휴양 마을은 툰 호수와 베르네제 알프스의 장관을 선사한다. 하이킹과 산책 트레일로 가득한 이곳에는 산과 호수의 풍경이 펼쳐지는 곳에서 스파도 이용할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180m 높이의 현수교는 베르네제 알프스의 장관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준다. 다리는 에슐렌(Aeschlen)과 지그리스빌 마을을 이어주고 있다. 340m 길이의 현수교에는 다리 안전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자연과 기술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새 동지의 위치며, 다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디에서 뭍 먹으면 좋을지 어떤 질문을 해도 좋다. 입장료는 CHF 8 이며 16 세까지는 무료.

찾아가기



인터라켄 서역(Interlaken West)에서 버스 21 번을 타고 군텐(Gunten)까지 간다. 군텐에서 버스 25 번을 타고 지그리스빌에서 하차한다. 혹은 슈피츠(Spiez)에서 유람선을 타고 군텐까지 간 뒤, 버스 25 번을 탈 수도 있다.

5. 취리히(Zürich)

세계에서 가장 살기 도시다운 세련된 면모를 갖춘 곳이자,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취리히. '예술은 미술관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모토로 도시 전체를 예술의 장으로 만들고 있기도 한 취리히에는 거리의 사인물부터 공공시설까지 세련된 디자인 감각이 녹아있다. 호숫가 대도시 취리히에는 크리에이티브한 도시 분위기가 찬란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행사와 다채로운 박물관, 취리히만의 푸드 페스티벌, 스위스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나이트 라이프로 밤낮없이 활동적이다. 찬란한 햇살이 부서지는 물결과 그 위로 반사되는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려면 리마트(Limmat) 강의 보트를 타보도록 한다. 취리히 호수부터 리마트 강을 따라 곳곳에 보트 선착장이 있다. 혹은 강과 호수에 자리한 야외 수영장에서 알프스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자. 휴식과 휴양을 원한다면 알프스산이 한 시간 내의 거리에 있다.

1)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린덴호프 (Lindenhof)

윤세리가 리정혁을 그리워하며 스위스를 걷던 곳들은 바로 취리히. 취리히 최고의 전망대, 린덴호프(Lindenhof)가 주 무대이다. 취리히 구시가 중간 언덕 위에 자리한 광장으로, 리마트(Limmat) 강을 따라 이어지는 취리히의 구시가지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다. 쌍둥이 첨탑,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와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프라우뮌스터(Fraumünster)도 취리히 풍경을 보여 줄 때 줄곧 등장했다.

찾아가기

취리히 기차역에서 리마트강변을 따라 걸어서 10 분. 트램 11, 13, 4 번으로는 6-8 분 소요되며, 하차 역은 렌베그(Rennweg) 역이나 라트하우스(Rathaus)역에서 하차해 도보 150m 정도 걷는다.

2) 간지 풀풀 뽀족구두 신고 인증샷, 뮌스터브뤼케(Münsterbrücke)

윤세리가 리정혁을 그리워하며 거닐던 다리는 뮌스터브뤼케(Münsterbrücke)다. 리마트(Limmat) 강 위로, 프라우뮌스터(Fraumünster)와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를 연결해 주는 다리라 붙은 이름이다. 스위스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다리다. 윤세리의 패션이 다리와 잘 어울려서 인상적이었다.

찾아가기

취리히 기차역에서 강가를 따라 두 성당을 따라 10 분. 두 성당을 잇는 다리.

3) 단 것, 달달구리한 게 당겼을 때 갔던, 하이마트베르크 (Heimatwerk)

윤세리와 단이가 만난 기프트숍은 취리히 구시가에 위치한 기프트숍. 드라마 속 초콜릿은 없지만, 기념품을 파는 곳이다. 하이마트는 고향이라는 뜻이고 베르크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아기자기한 스위스의 전통적인 기념품을 판다.

찾아가기

취리히 기차역에서 리마트강변을 따라 걸어서 5 분 거리. 린덴호프 전에 위치한다.

Switzerland Tourism.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 Dongbu Dadong Bldg., Da-Dong, Jung-Gu, Seoul, Rep. 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